



Analyst
권순우

soonwoo@sk.com
02-3773-8882

자동차

미국 자동차 관세 발표 연기 - 미뤄진 불확실성 해소

미국 행정부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최대 180 일 연기. 성명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 각종 정치적 섹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단정짓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 유지. 무역확장법 232 조는 대통령 최종 결정 사항임을 고려하면 섹션은 단정은 무리.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였으나 미뤄짐, 자동차섹터는 당분간 본업의 회복 여부에 초점을 맞출 필요

미국,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 최대 180 일 유예

-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을 최대 180 일 연기할 것이라고 17 일(현지시간) 밝힘
-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 2018 년 5 월 23 일 미국 상무부에서 무역확장법 232 조에 의거한 국가안보위협 조사가 개시되었고, 19 년 2 월 16 일에 대통령에게 조사결과가 보고되었음. 90 일 내로 대통령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추가검토 등을 이유로 연기
- 성명에서 1)미국산 제조업체에 의한 R&D 지출이 뒤처지면 혁신이 약화되며, 2) 현재의 차량 및 부품 수입물량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언급
-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는 고율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거론되었으나 실제로는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도 고려했음을 언급하는 정도만 발표

미뤄진 불확실성 해소

- 무역적자의 축소,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수출 규모, 예상되는 미국업체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관세부과의 명분과 실리는 분명 존재. 하지만 관세부과가 수입 및 현지 생산 비용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 또한 보복관세가 부과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은 각종 정치적 섹션을 반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단정짓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 유지
- 결국 미국 현지에 완성차 생산법인과 핵심부품공장의 증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세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18 년 철강/알루미늄 관세, USMCA 의 사례를 고려할 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부과와 쿼터제 적용도 가능하다는 판단.
(19.2.12 '미국 무역확장법 232 조 -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자' 발간자료 참고)
- 금번 발표로 자동차섹터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기대하였으나 최대 180 일 가량 연기. 무역확장법 232 조는 대통령 최종 결정 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발표 이전까지 관세 부과여부와 관련된 섹션은 판단은 자제할 필요. 19 년 연말에 불확실성으로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전까지 자동차섹터는 본업의 회복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표 1> 미국 수입자동차 및 부품 무역확장법 232 조 일정

일자	내용
2018.5.23	조사개시
2018.6.22	이해관계자 의견서(Public Comment)와 공청회(Public Hearing) 참석 여부 및 발언 요지 제출
2018.7.6	기제출된 코멘트에 대한 반박자료 제출
2018.7.19.-20	공청회 개최
2019.2.16 이내	대통령에게 조사결과 보고 (조사개시 이후 270 일 이내) ※ 철강 232 조의 경우 대통령 보고 약 한 달 이후 내용 공개
보고 이후 90 일 이내	대통령 최종 결정
결정 이후 15 일 이내	결정된 조치 시행

자료: KITA, SK 증권

<표 2> 미국 수입자동차 및 부품 232 조 조사 관련 주요 논점 사항

구분	내용
조사근거	1962 년 무역확장법 232 조
조사대상	수입 자동차(승용차, SUV, Van, 경트럭), 수입 자동차 부품
서면의견 접수내용	통계분석 - 조사대상 및 관련된 데이터, 분석, 의견 생산능력 - 국가안보에 필요한 자동차 및 부품 생산량 및 생산능력 가용자원 - 미국 내 자동차 및 부품 생산에 필요한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인적자원, 제품, 원재료, 제조설비 능력 투자 - R&D 및 투자 차원에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성장 정도 경제후생 - 자동차 및 부품 분야에서 외국과의 경쟁이 경제 후생에 미치는 영향 생산이동 - 자동차 및 부품 분야 국내시설의 이전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실업, 재정적자, 투자감소, 숙련인력 감소, 생산성 감소) 관련요소 - 국가 경제를 약화시키는 자동차 관련된 요소들 기술안보 - 국가안보를 위해 자동차 산업의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정도 외투생산비용 - 미국내 자동차 생산 과반이 미국기업이 아닌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해 발생할 때 상기 요소들에 대한 분석

자료: KITA, SK 증권

<표 3> 무역협상법 232 조 관세 시나리오 -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비교, 실질 부과시 변경 가능

산업	내용
자동차 (2019 년)	1. 별도 협약이 없는 모든 수입차에 20~25%의 관세를 부과 2. 자율주행차/커넥티드카/전기차/공유차 유관 기술에만 관세 부과 3. 1 안과 2 안의 중간 수준의 제재
철강 (2018 년)	1. 전 수입산 철강제품에 24% 관세 부과 2. 12 개국(브라질, 중국, 코스타리카, 이집트,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러시아, 남아공, 태국, 터키, 베트남)의 철강제품에 53% 관세 부 과 및 기타 국가는 2017 년 수입량과 동등한 쿼터 설정 3. 전 국가에 2017 년 대미 수출량의 63% 수준의 쿼터 설정
알루미늄 (2018 년)	1. 전 수입산 알루미늄 제품에 7.7% 관세 부과 2. 중국, 홍콩,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 제품에 23.6% 관세 부과 및 기타 국가는 2017 년 수입량과 동등한 쿼터 설정 3. 전 국가에 2017 년 대미 수출량의 최대 86.7% 쿼터 설정

자료: 언론 요약, SK 증권

<표 4> 1962년 무역확장법 232 조에 따른 조사 개시 및 조치 현황

#	신청 연도	산업	신청자	위험판정	시행조치
1	1963	망간	민간협회	X	없음
2	1964	텅스텐	민간협회	X	없음
3	1965	시계	대통령	X	없음
4	1968	크롬, 망간	민간 위원회	X	없음
5	1969	미니어처	민간협회	X	없음
6	1972	초고압 전력회로	민간협회	X	없음
7	1973	석유	정책 위원회	O	수량제한/수입허가료 부과
8	1975	석유	재무장관	O	추가요금 부과
9	1978	너츠, 볼트, 철강나사	대통령	X	없음
10	1978	석유	재무장관	O	석유 보존요금 부과
11	1979	석유	재무장관	O	이란 석유 금수조치
12	1981	유리선 화학제조 가구	민간협회	X	없음
13	1981	크롬, 망간	민간협회	X	없음
14	1982	너츠, 볼트, 철강나사	민간협회	X	없음
15	1982	리비아산 석유	대통령	O	리비아 석유 금수조치
16	1987	철강절단기	민간협회	미판정	자발적 수출제한조치
17	1987	미끄럼방지, 베어링	민간협회	X	없음
18	1987	석유	정부기관	O	에너지 산업구조 개선계획
19	1988	플라스틱 틀 기계	민간협회	X	없음
20	1988	우라늄	에너지장관	X	없음
21	1991	기어	민간협회	X	없음
22	1992	내부회로 세라믹	민간협회	X	국방부-상무부 협동계획
23	1994	석유	민간협회	O	없음
24	1999	석유	통상장관	O	없음
25	2001	철강	국회의원	X	없음
26	2017	철강	국회의원	X	없음
27	2017	철강	대통령	O	관세 부과(쿼터)
28	2017	알루미늄	대통령	O	관세 부과(쿼터)

자료: 『통상법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SK 증권 재인용

<표 5> 수입차/부품 관세 부과에 따른 MSRP 상승률 - 가격인상 부담 존재

	2018 MSRP	비중(16~18 평균)		관세 적용 시나리오 - 완성차 / 부품				관세적용 MSRP 상승률			
		현지생산	수입	25/25/	25/10	10/25	10/10	25/25/	25/10	10/25	10/10
산업평균	38,126	65.2	34.8	42,510	41,868	40,522	39,880	11.5%	9.8%	6.3%	4.6%
Ford	43,648	93.2	6.8	46,857	45,376	46,413	44,932	7.4%	4.0%	6.3%	2.9%
GM	42,908	73.0	27.0	47,292	46,398	45,555	44,661	10.2%	8.1%	6.2%	4.1%
도요타	35,202	53.7	46.3	39,934	39,538	37,491	37,095	13.4%	12.3%	6.5%	5.4%
혼다	31,253	77.3	22.7	34,242	33,514	33,176	32,449	9.6%	7.2%	6.2%	3.8%
FCA	39,561	62.3	37.7	44,290	43,690	42,052	41,453	12.0%	10.4%	6.3%	4.8%
닛산	29,031	60.1	39.9	32,607	32,198	30,870	30,461	12.3%	10.9%	6.3%	4.9%
BMW	50,130	107.0	0.0	58,507	55,573	58,507	55,573	16.7%	10.9%	16.7%	10.9%
스바루	27,700	52.8	47.2	31,469	31,167	29,509	29,207	13.6%	12.5%	6.5%	5.4%
다임러	57,767	62.5	37.5	65,104	63,949	61,857	60,702	12.7%	10.7%	7.1%	5.1%
VW	39,197	18.0	82.0	47,342	47,278	42,520	42,455	20.8%	20.6%	8.5%	8.3%
현대/기아	25,414	48.8	51.2	29,087	28,835	27,136	26,884	14.5%	13.5%	6.8%	5.8%

주: 매출원가율 80% 가정

자료: Marklines, Edmunds, SK 증권 추정

<표 6> 232 조 적용 시나리오별 미국 고용 및 GDP 영향

		고용(천명)	GDP(억달러)
25% 부과	모든 국가에 부과	-715	-592
	캐나다/멕시코 제외	-197	-153
10% 부과	모든 국가에 부과	-308	-255
	캐나다/멕시코 제외	-82	-64
쿼터 적용	모든 국가에 부과	-749	-622
	캐나다/멕시코 제외	-123	-90

주: 쿼터는 미국 2017년 수입량의 80%로 가정

자료: CAR, SK 증권 재인용

<표 7> 미국 자동차 관세 부과 및 상대국 보복 관세 시 수입과 수출, 고용에 미치는 영향

	미국 자동차 / 부품 산업 영향(%)				총고용 변화
	수입	수출	생산	고용	
시나리오 1: 모든 자동차 및 부품 수입국에 대해 일률적 25% 관세 부과	-5.29	-2.53	-1.5	-1.92	-195,000
시나리오 2: 시나리오 1 + 모든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상응하는 보복조치	-6.7	-8.8	-3.98	-5.07	-624,000

자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SK 증권

<표 8>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시나리오별 파급효과

	한국 자동차 산업 총생산 변화(%)		한국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 증감 (십억 \$)	
	미국 일방적 관세부과	상대국 보복관세 부과	미국 일방적 관세부과	상대국 보복관세 부과
미국 수입 자동차/부품 전체에 25% 관세 부과	-4.46	0.11	-5.26	-9.82
25% 관세 부과 면제: 캐나다, 멕시코	-6.75	-5.00	-7.77	-4.32
25% 관세 부과 면제: 캐나다, 멕시코, EU	-7.44	-5.77	-8.29	-4.99
25% 관세 부과 면제: 캐나다, 멕시코, 일본	-7.46	-5.68	-8.31	-4.83
25% 관세 부과 면제: 캐나다, 멕시코, 한국	4.15	5.63	4.06	7.23
25% 관세 부과 면제: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7.96	-6.29	-8.67	-5.37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SK 증권 재인용

Compliance Notice

- 작성자(권순우)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SK 증권 유니버스 투자등급 비율 (2019년 5월 20일 기준)

매수	91.45%	중립	8.55%	매도	0%
----	--------	----	-------	----	----